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

소식지
2024년 9월 22일

발행호: 제167호 / 발행인: 최승덕 / www.gweu.kr / ☎ 734-6344 / 팩스 815-5510

실질임금 삭감 규탄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촉구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약속 이행하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강교노, 위원장 최승덕)은 19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공무원 · 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강교노와 강원교사노동조합, 우정노조 강원본부를 비롯한 **한국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 · 우체국 · 교육청지부 등 **민주노총**이 함께 참여하여 공직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생존권을 요구하기에 이른 처참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가 나서서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취업 선호도 1위를 달리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이제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 저하와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에 청년세대 공무원의 이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이 오지 않는 직장, 청년이 떠나는 직장은 미래가 없다.**

또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 연금수급개시 시기를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고통을 감내하는 대신 정부가 약속했던 연금 소득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한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퇴직 공무원의 노후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당초 강교노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 단체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고위직과 차등 적용하고 특히 저연차 청년세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일괄 3% 인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강교노가 지금 이 시점에도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아직 인사혁신처의 2025년 공무원 봉급표가 확정 ·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교노는 지난 4년 연속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를 해소하고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신규) 공무원 보수 추가 인상 ▲저연차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율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여 연말에 발표될 2025년 공무원 봉급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공무원의 연금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하며 그 구심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